

ISSN 2734-1437(오프라인)
ISSN 2765-1851(온라인)



2022
Vol.3 No.1

GTC FOCUS

기술프레임워크와 기후기술협력사업 개발 방법

: 정책대화의 이론적 · 실용적 분석

김제원, 우아미, 강하나, 엄단비, 전덕우

기술프레임워크 하 기후기술협력사업 개발 방법

: 정책대화의 이론적·실용적 분석

김제원, 우아미, 강한나, 엄단비, 전덕우

기술프레임워크, 기후기술, 정책대화, 가능여건, 역량강화, 이해관계자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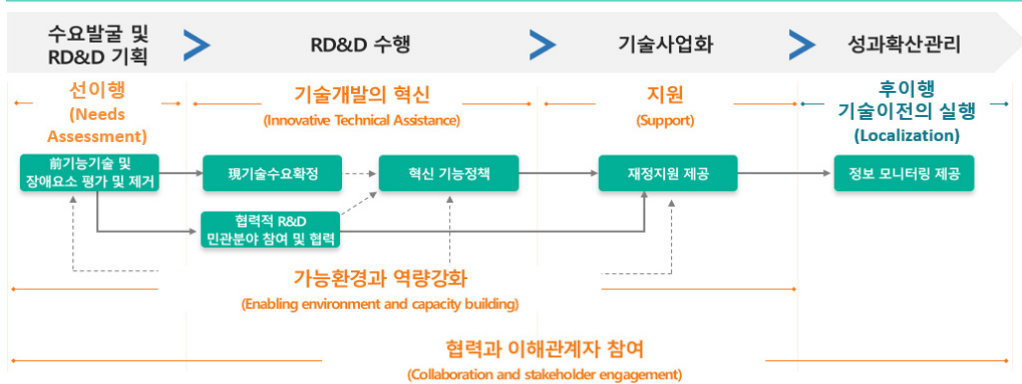
1	서론	05
2	정책대화 개요	11
3	국내 정책대화 도입 배경 및 적용 현황	12
4	국외 정책대화 도입 배경 및 적용 현황	15
5	기후기술협력 사업 관련 시사점	20
■	참고문헌	21

요약



1. 기술프레임워크 하 기후기술협력사업 개발을 촉진시킬 적절한 기후기술의 소통 방법 필요

- '15년 파리협정 제10조 제4항에 근거, 신기후체제 下 확정된 기술프레임워크의 기술협력 수행 업무 영역 5가지는 ① 기술개발의 혁신 (Innovation), ② 이행 (Implementation), ③ 가능여건과 역량강화 (Enabling environment and capacity building), ④ 협력과 이해관계자 참여 (Collaboration and stakeholder engagement), ⑤ 지원(Support)
- 기후기술과 같이 과학적이고 전문성을 요구하는 지식 및 정보 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수단 및 방법을 연구하는 것은 기술협력 활동의 가속화 및 효과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각 주요주제들의 행동 및 활동들을 기후기술의 이전 달성을 목표로 한 전주기 기후기술협력 프로세스로 대비시켰을 때, 선행, 동행 혹은 후행 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지원 활동으로 구별 가능



- 기술프레임워크 하 주요주제 중 3번과 4번에 해당하는 '가능여건과 역량강화', '협력과 이해관계자 참여' 활성화에 적용 할 수 있는 분야별 접근 방식은 여럿 존재

주요주제	필수 고려요소	적용 분야	접근 방식
가능여건과 역량강화, 협력과 이해관계자 참여	기후기술 관련 정보의 소통과 공감	사회과학	교육학-심리학
			어떤 정보를 습득하게 할 것 인가?
			어떤 관점을 가지게 할 것 인가?
		경영학-소셜마케팅	언제 참여시킬 것인가?
			누구를 참여시킬 것인가?
			어떻게 참여를 시킬 것인가?
		행정학-정책과학	무엇을 제도화할 것인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어떤걸 평가할 것인가?

- 기후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어떠한 접근 방식을 선택하느냐는 연구자의 선택에 달려 있으므로, 동 포커스에서는 위와 같이 예시로 제시한 적용 가능한 분야 중 경영학 중에서도 소셜마케팅 접근 방식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책대화(policy dialogue)를 제시

2. 정책대화는 현존하는 참여적 방법(participatory design)들 중 하나로, 여러 이해관계자들 간의 공동 가치를 창출(co-value creation) 하는 과정

- 기후기술의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통한 기술프레임워크의 활성화 관점에서 정책 대화는 숙고 토론, 워크숍 등의 기후기술협력에 얽혀있는 이해관계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도모하는 역량강화 서비스의 성격을 보임
- 국내 학술지 및 보고서들을 중심으로 정책대화 방법의 국내 도입 배경을 조사하였을 때, 이는 과학기술의 거버넌스의 변화와 상당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
- 문헌조사와 같은 이차적 연구(Secondary, Desk Research)를 통해 확인된 국내 정책대화 도입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기후기술과 관련된 분야별로 정책대화 적용 특징이 상이
- 이에 반해, 국외 학술지들을 중심으로 정책대화 방법의 국외 도입 배경을 조사하였을 때, 이는 민주적 과학기술 형성 관점에 기초하고 있음을 확인
- 국외에서 정책대화는 민주적 과학기술 정책을 형성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확인
- 이에 따라 국내 정책대화는 정부 부처 주도하에 이뤄지고 있으나 국외의 경우 기술 전문가 집단 주도하에 정책대화가 이뤄지고 있음을 발견

3. 국내와 국외의 정책대화 이행방식에 차이 존재, 기후기술 소통의 강화에 따른 기술정책 강화 사례 전무

- 전반적으로 기후기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의 경우 정책대화 이행수단으로 디지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고 있어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결정되는 개방형 정책체계 아래 정책대화가 이행되고 있음을 발견
- 국외의 경우 대부분 대면을 필두로 한 행사 형식의 정책대화를 진행하고 있음을 발견
- 이행방식에 차이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에는 소통의 방법론을 국내의 경우엔 참여(participatory)로 제한하고 있어 국외의 공동창조(co-creation) 보다 일방적인 설명에 가깝기 때문
- 국내의 경우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위한 소통이 “쌍방향적과 균형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 대한 동의는 존재하나, 실무차원에서 정책대화를 국민 참여를 넘어서 공동창조로 격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이드라인이 없음
- 구체적으로 특정 정책의 고도화를 위해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여 참여시켰는지와 같은 정보가 한정적이어서 이에 대한 개선 필요
- 또한, 정책대화의 효과성에 대한 정보가 공개적이지 않거나, 분석 불가능하여 이전 정책대화의 적용에 따라 창출되었거나 향후 창출될 수 있는 공동가치에 대한 평가 체계의 마련 시급

3. 시사점

- 기후기술 및 기후기술협력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정책대화 이행 권고
 - 기후기술 정책대화는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정책형성 및 결정과정, 평가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넘어선 기후기술 정책 수립의 공동가치(co-value)의 창출을 목적으로 할 것
- 국외와 비교했을 때, 기후기술의 소통을 위한 국내용 정책대화 가이드라인의 부재
 - 기후기술정책 유형별로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소유한 정부부처, 기업, 시민 및 시민단체들을 선별할 수 있는 선정체계 마련 필요
 - 향후 보충 연구를 통해 한국 기후기술 소통 맞춤형 정책대화 가이드라인의 보급 권고
- 정책대화의 실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영향평가체계 마련 필요
 - 정부-기업-시민을 잇는 기후기술 정책대화 결과물의 이행과정 기록 필요
 - 기후기술 정책대화 평가 체계 개발

1

서론

1.1 기후기술협력과 기술프레임워크

- ▶ 유엔기후변화협약 내 기후기술의 이전(transfer)의 정의는 ‘기후변화 적응 및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 및 비정부단체와 같은 여러 이해관계자들 간의 경험, 노하우, 기술장비의 공유 과정’임
 - 2015년 파리협정 제10조 제4항에 근거, 신기후체제 下 확정된 기술프레임워크의 기술협력 수행 업무 영역 5가지는 ① 기술개발의 혁신 (Innovation), ② 이행 (Implementation), ③ 가능여건과 역량강화 (Enabling environment and capacity building), ④ 협력과 이해관계자 참여 (Collaboration and stakeholder engagement), ⑤ 지원(Support)임¹⁾
 - 이 중 기술프레임워크 내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해관계자들을 기후기술 이전에 참여시키는 것은 지역공동체, 정부기관, 민간기업, 시민단체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전문지식 및 정보교류의 촉진으로 점철
 - (목적) 기후기술과 같이 과학적이고 전문성을 요구하는 지식 및 정보의 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수단 및 방법을 연구하는 것은 다수 기술협력 활동의 가속화 및 효과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1.2 글로벌 탄소중립 선언 최신 동향

- ▶ 기술프레임워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하 관철된 기술 메커니즘의 업무에 전반적인 지침이 되는 문서로, 2015년 파리협정을 기준으로 목적(purpose), 원칙(principles), 주요주제(key themes)의 변화가 있었음²⁾
 - 2001년 제7차 당사국총회에서 소개된 기술이전프레임워크는 그 목적을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ESTs, environmentally sound technologies)과 노하우의 이전, 접근의 증대 및 개선에 둠 (Decision 4/CP.7)^{3), 4)}
 - 원칙은 따로 명시하지 않았고, 주요주제는 총 5가지로 1) 기술 수요와 수요 평가, 2) 기술 정보, 3) 가능 환경 마련, 4) 역량 강화, 5) 기술 이전 메커니즘이었음
 - 2015년 파리협정에서 갱신된 기술프레임워크는 그 목적을 기술메커니즘의 업무에 전반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원칙은 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할 총 5가지의 방향성으로 1) 일관성 (Coherence), 2) 포괄성(Inclusiveness), 3) 결과지향성(Result-oriented approach), 4) 전환적 변화(Transformational approach), 5) 투명성(Transparency)으로 구성함(Decision 1/CP.21)⁵⁾

- 상위 5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기술메커니즘의 구체적인 기술협력 지원 활동 5가지를 ① 기술개발의 혁신 (Innovation), ② 이행 (Implementation), ③ 가능여건과 역량강화 (Enabling environment and capacity building), ④ 협력과 이해관계자 참여 (Collaboration and stakeholder engagement), ⑤ 지원(Support)으로 업데이트함⁶⁾
- 매년 진행되는 기술메커니즘 이사회(TEC, Technology Executive Committee) 회의를 통해 기술협력 지원 활동들의 주요 핵심 업무 및 목표 지표의 적합성과 구체성 정도를 논의하여 수정 보완하고 있음

[표 1-1] 기술프레임워크의 주요주제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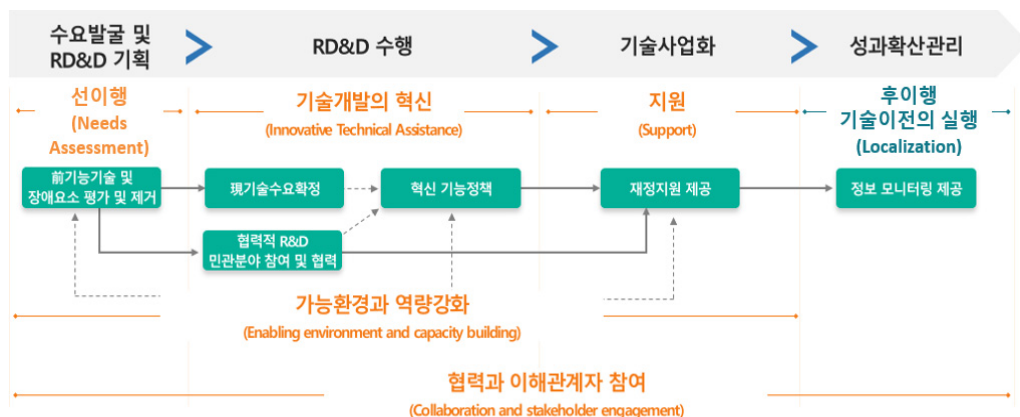
2015년 이전 기술프레임워크 주요주제	2015년 이후 기술프레임워크 주요주제	구체적인 지원 활동
기술 수요와 수요 평가 (Technology needs and needs assessments)	➔ ① 기술개발의 혁신 (Innovation)	a. 혁신 가능정책 b. 협력적 R&D c. 민간분야 참여 및 민간협력
가능 환경 마련 (Enabling environments)	➔ ② 이행 (Implementation)	d. 기술수요평가 e. 이전가능기술 평가 f. 장애요소 제거
역량 강화 (Capacity-building)	➔ ③ 가능여건과 역량강화 (Enabling environment and capacity building)	g. 가능여건 h. 역량배양
기술 정보 (Technology information)	➔ ④ 협력과 이해관계자 참여 (Collaboration and stakeholder engagement)	i. 주요 이해관계자와 참여 j. 여타 기관/이니셔티브와의 협력
기술 이전 메커니즘 (Mechanisms for technology transfer)	➔ ⑤ 지원(Support)	k. 지원의 제공 l. 정보의 모니터링 및 제공

▶ 각각의 주요주제는 ‘행동 및 활동(actions/activities)’, ‘목표 결과(intended outcome)’, ‘달성 지표(indicative performance indicator)’와 같은 세부 내용을 표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음

- 5가지의 기술협력 지원 활동들은 이행 중요도 면에서 비슷한 수준의 목표결과와 달성지표들을 보이고 있음
- 각 주요주제들의 행동 및 활동들을 기후기술의 이전 달성을 목표로 한 전주기 기후기술협력 프로세스에 나열하였을 때, 선행, 동행 혹은 후행 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지원 활동의 구별이 가능함
- 예를 들어 주제 ‘이행’의 ‘(e) 이전가능기술평가’와 같은 활동은 기후기술협력 프로세스에서 가장 먼저 선행 되어야 할 활동으로, ‘(d) 현재 기술의 수요를 확정’하고 이와 부합하는 ‘(a) 혁신 가능정책’을 도출하는데 쓰일 수 있음
- ‘(l) 정보의 모니터링 제공’과 같은 지원 활동은 ‘(k) 재정 지원’을 통해 실행되는 기술이전의 과정에서 적용되어야 할 활동으로, 기후기술협력 프로세스에서 후행되는 지원 활동임
- 이에 반해, ‘가능여건과 역량강화’와 같은 지원 활동들은 ‘이행’~‘기술개발의 혁신’~‘기술-재정연계’와 관련된 활동들을 강화하기 위해 기후기술협력 프로세스 앞단에서 동행되어야 하는 지원활동임

- 그 중에서도, ‘협력과 이해관계자 참여’와 관련된 지원 활동들은 기후기술이전의 이행을 도모하기 위해 기술수요의 평가, 혁신 가능정책의 제시, 재정지원의 제공, 장애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정보 모니터링의 제공과 같은 활동들의 성과를 보장하기 위해 기후기술협력 프로세스 전 주기에서 동행되어야하는 활동임

[그림 1] 기후기술협력 전주기 프로세스 하 기술프레임워크 행동 및 활동



1.3 기술프레임워크 下 ‘③가능여건과 역량강화’, ‘④협력과 이해관계자 참여’

▶ 기술협력 5가지 활동 중 ‘가능여건과 역량강화’, ‘협력과 이해관계자 참여’와 같은 주요 주제들이 강조하는 지원 활동들은 여타 주제들의 지원 활동들에 비해 지역접근법(regional approach)을 기반⁷⁾으로 한 사회과학(social science)의 성격을 보임

- 기술협력 5가지 활동 중 3번에 해당하는 ‘가능여건과 역량강화’는 파리협정이전 나뉘어져있던 주요주제들을 통합함으로써, 기술이전의 수혜자인 개발도상국들의 역량강화의 이유가 기술협력과 실행을 가능하게 만드는 내·외적 환경(surrounding) 조성에 있음을 의미^{6), 7)}
- 기술협력 5가지 활동 중 4번에 해당하는 ‘협력과 이해관계자 참여’는 파리협정이전에는 기술의 정보 제공과 같은 기술 공급자적 목적에서 비롯되었으나 2018년 기후기술 개발 및 이전을 목표로, 다양한 차원에서의 협력을 통해 기후변화 적응 및 기후 취약성 극복과 같은 전 지구적 이행점검을 강조^{6), 7)}
- 3번, 4번과 같은 주요주제들은 기술의 정보기후기술의 개발과 이전 전주기에 얽혀있는 국제, 국가, 지역 단위의 이해관계자들 간의 효율적이고 일관된 협력을 위하여, 구체적인 지원 활동을 1) 개발도상국의 역량배양을 통한 기술이전 가능 여건 마련, 이의 일환으로 2) 관계 기관과의 협력 도모, 3) 기술이전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 이해관계자 참여를 업무 지침으로 지정⁶⁾하여 하드웨어적 기술의 개발 및 혁신과 같은 다른 주요주제에 반해 소프트웨어적 기술의 개발을 내포

[표 2] 기술프레임워크 하 주요주제 3, 4번의 목표 결과 및 행동/활동⁸⁾

주요주제	목표 결과 (Intended Outcomes)	행동/활동 (Actions/Activities)	목표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적용 가능한 분야
가능여건과 역량강화	기후 기술 개발 및 이전에 대한 대중 인식 제고	- CTCN 네트워크 기관 전문가 및 지식 파트너 등 간의 모임 확대 - (지식공유) CTCN 지식 공유 플랫폼, 웨비나 등을 통한 정보 공유 확산	경영학 - 소셜마케팅
	기후기술 관련 투자 촉진 환경 조성	- (기술지원) 기후기술 자원방안 구체화 및 정책/계획/법 기술지원 제공 - (역량배양) 국가 전략 및 액션플랜 등을 위한 역량 배양	행정학
	내생적(endogenous) 및 성인지적(gender-responsive) 기술을 촉진시키기 위한 가능 환경 촉진	- (기술지원) CTCN 젠더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TA 수행과 이에 대한 개도국 역량 강화 진행 - (역량배양) 젠더 및 내생적 기술 관련 역량배양 서 비스를 공공, 비정부기구, 민간 등에 제공	교육학 - 심리학
	민간 및 공공 분야 참여를 위한 정책 개발/이행 및 가능 여건 조성	- (참여) 민간 참여 확대 활동 - (역량배양) 중소기업 및 공공 기관 대상 역량 강화	행정학 - 정책과학
	정부차원의 민간참여 촉진 정책, 규제, 기준 등 마련	- (역량배양) 기후기술 시장성 평가 관련 민간 교육,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등에 대한 공공 기관 교육	
	우수사례, 경험공유 등을 위한 정보 공유 환경 마련	- (교육) 국가들의 기후기술 정책 및 활동 우수사례 및 교환 공유	교육학 - 심리학
	역량강화기관 간 협력 강화	- (연계) UNFCCC 기후 주간, GCF 지역 회의 등 워크숍 및 회의를 통한 네트워크 및 연계 강화	경영학 - 소셜마케팅
	개도국 국가지정기구(NDE) 역량강화	- (교육) 지역포럼, 워크숍,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국가지정기구(NDE) 담당자 교육	교육학 - 심리학
	국가들의 파리협약 달성을 위한 계획, 모니터링 등 역량 강화	- (기술지원) CTCN TA로 기후기술 구체화 및 평가 방법론 개발 지원 - (역량배양) 정부 관계자 대상 교육 진행	행정학 - 정책과학
협력과 이해관계자 참여	기술메커니즘 활동 계획 및 이행에 기술관련 이해 당사자 (지역 커뮤니티, 정부기관, 국가 정책 입안자, 민간분야, 시민단체)의 참여 및 협력 강화	- 국가지정기구(NDE)를 중심 축(pivotal)으로 하는 주요 이해관계자(민간, 네트워크 기관 등) 간 파트너십 확대 및 관련행사 개최	경영학 - 소셜마케팅
	파리 협정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우호 환경 조성 관련, 자발적인 민간 분야 참여와 협력 증대	- 지역개발은행, 지역 자원 기구, 민간분야와의 파트너십 - (기술지원) 민간분야 자원접근 강화를 위한 시장 장애 요인 및 투자 가능여건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 (역량강화) 기술 구체화를 위한 역량강화 및 지역포럼을 통한 관계자간 매치메이킹 기회 제공	
	지침과 정보를 제공을 통한 국가지정기구(NDE)와 관련 이해관계자 간 참여 증대	- (행사) 국가지정기구(NDE) 역량강화를 위한 특정 주제별 지역(sub-regional) 워크숍 개최	
	국제 기구, 기관, 이니셔티브 (학계, 연구소 포함)의 전문성 /경험/지식(새로운 혁신기술 등 관련) 활용(leverage)을 위한 협력 및 시너지 강화	- 지식 파트너십, CTCN 행사, 지역 포럼 등을 통하여 신규 및 혁신기술관련국제기구, 기관, 이니셔티브등의 전문가들의 전문성활용기회마련	

▶ (필요성) 두 가지 주요주제들의 목표결과와 행동 및 활동사항들을 살펴봤을 때, 기후기술협력과 관련된 정보들의 소통(communication)과 공감(empathy)이 기후기술이전이라는 사업성과 달성에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임

- 3, 4번의 목표 결과와 행동 및 활동 이행을 위해 적용 가능한 연구 분야로는 1) 교육학, 2) 경영학, 3) 행정학 등이 있음
- 예를 들어, '우수사례, 경험공유 등을 위한 정보 공유 환경 마련', '내생적(endogenous) 및 성인지적(gender-responsive) 기술을 촉진시키기 위한 가능 환경 촉진', '지침과 정보의 제공을 통한 이해관계자 간 참여 증대'와 같은 목표 결과들은 교육사회학적 접근방식을 통해 기후기술과 관련된 정보의 '인지적 학습'을 통해 달성 가능함
- '기후 기술 개발 및 이전에 대한 대중 인식 제고', '파리 협정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우호 환경 조성 관련, 자발적인 민간 분야 참여와 협력 증대', '역량강화기관 간 협력 강화'와 같은 목표 결과들은 경영학(특히 소셜마케팅)적 접근방식을 통해 기후기술과 관련된 정보구성에 '직접참여'를 통해 달성 가능함
- 마지막으로, '정부차원의 민간참여 촉진 정책, 규제, 기준 등 마련', '민간 및 공공 분야 참여를 위한 정책 개발/이행 및 가능여건 조성', '기후기술 관련 투자 촉진 환경 조성'과 같은 목표 결과들은 행정학적 접근방식을 통해 앞서 학습과 직접참여를 통해 구성한 기후기술과 관련된 정보들을 '제도화'함으로써 달성 가능함

[표 3] 기술프레임워크 하 주요주제 3,4번 달성을 위해 적용 가능한 분야 및 방식 (예시)

주요주제	필수 고려 요소	적용 분야	접근 방식	
가능여건과 역량강화, 협력과 이해관계자 참여	기후기술 관련 정보의 소통과 공감	사회과학	교육학-심리학	어떤 정보를 습득하게 할 것인가?
				어떤 관점을 가지게 할 것인가?
			경영학-소셜마케팅	언제 참여시킬 것인가?
				누구를 참여시킬 것인가?
				어떻게 참여를 시킬 것인가?
			행정학-정책과학	무엇을 제도화할 것인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어떤걸 평가할 것인가?

▶ 주요주제 3,4번의 목표 결과를 달성을 목적으로 한 기후기술협력과 관련된 정보들의 소통(communication)과 공감(empathy) 형성에 적합한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접근 방식은 목표결과별 적용 분야에 따라 상이

- 교육 심리학에서 제시하는 인지적 학습법인 첨가(accretion), 조율(tuning), 재구조화(restructuring)는 대상자로 하여금 기후기술에 대해 어떠한 관점을 지니게 할 것인가와 같은 이슈 결정에 접목 가능하여, 방대한 기후기술 관련 정보 중 보다 대상자가 공감할 수 있는 기후기술 정보의 선택을 도울 수 있기에 주요주제 3번의 목표결과인 '우수사례, 경험공유 등을 위한 정보 공유 환경 마련'을 달성에 기여 가능
- 응용경영학인 소셜마케팅(social marketing)이 제시하는 직접참여방식(voluntary engagement)⁹⁾은 어떤 이해관계자를 언제,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와 같은 이슈 결정에 접목 가능하여, 동의(consensus)을

바탕으로 한 기후기술의 소통을 통해 주요주제 4번의 ‘협력 강화 및 증대’와 같은 목표결과 달성에 기여 가능

- 정책과학인 행정학이 제시하는 사회제도화(Institutionalisation of information science)¹⁰⁾ 방식은 어떤 경제, 사회, 문화적 의미를 반영한 기후기술과 관련된 정보의 확산을 도모하고, 더불어 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관리할 것인가와 같은 이슈 결정에 접목 가능하여, 주요주제 3번의 목표결과인 ‘기후기술 관련 투자 촉진 환경 조성’과 같은 목표결과 달성에 기여 가능
- 이러한 적용 분야별 접근 방식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으로, 동 포커스에서는 정책대화(policy dialogue)를 제시

1.4 소결

- ▶ 기술프레임워크 하 주요주제 중 3번과 4번에 해당하는 ‘가능여건과 역량강화’, ‘협력과 이해관계자 참여’ 목표 결과와 행동 및 활동사항들을 살펴봤을 때, 기후기술협력과 관련된 정보들의 소통(communication)과 공감(empathy)이 기후기술이전이라는 사업 성과 달성에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로 사료
- ▶ 해당 주제들의 활성화를 위해 적용 할 수 있는 분야별 접근 방식은 여러 가지로 사회과학분야 중, 교육학, 경영학, 행정학 등이 예시로 제시
- ▶ 기술소통과 공감을 형성하기 위해 어떠한 접근방식을 선택하느냐는 연구자의 선택에 달려있으므로, 동 포커스에서는 예시로 제시한 적용 가능한 분야 중 경영학 중에서도 소셜마케팅 접근 방식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책대화(policy dialogue)를 분석하고자 함
- ▶ 이에, 기후기술협력사업의 추진의 일환으로 기술프레임워크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적절한 기후기술의 소통 방법으로 선택한 정책대화의 이론적·실용적 분석을 실시

2

정책대화 개요

2.1 정책대화 정의와 적용의 의미

- ▶ 국제개발협력에서 정의하는 정책대화는 원조공여국과 수원국간 정부차원의 원조내용이나 수원국의 경제·사회 정책 등에 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수렴하는 과정임¹¹⁾
- ▶ 실례로 정책대화는 아시아 협력대화(Asia Cooperation Dialogue)와 같이 동서아시아를 포괄하는 협력국들의 협의체 설립에 협력사업(project component)의 독립된 운영과업으로 적용되어, 지역 및 국제 정세 등에 관해 회원국 외교장관 간 의견교환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음¹²⁾
- ▶ 기후기술의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통한 기술프레임워크의 활성화 관점에서 정책 대화는 숙고 토론, 워크숍등의 기후기술협력에 얽혀있는 이해관계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도모하는 역량강화 서비스의 성격을 띠
- ▶ 즉, 기술프레임워크 하 주요주제 3,4번 활성화에 적용가능한 분야들의 접근방식을 고려했을 때 정책대화는 현존하는 참여적 방법(participatory design)들 중 하나로, 여러 이해관계자들 간의 공동 가치를 창출(co-value creation)¹³⁾ 하는 과정으로 점철됨
- ▶ 동 포커스는 방법과 방법론에 대해 Sartori (1970)와 Moses & Kuntsen (2008) 이 규명한 차이점에 주목하여, 방법은 ‘연구의 기법’, ‘과학적 탐구의 기술’로 정의하고 방법론은 ‘추론의 개념, 이론, 기본적인 원칙들에 대한 탐구’, ‘과학적 탐구의 논리적 구조와 과정’으로 정의함^{14), 15)}
- ▶ 이에 동 포커스가 고찰하는 정책대화는 공동가치창출(co-value creation) 방법론을 이행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 중 하나임을 명시함

3

국내 정책대화 도입 배경 및 적용 현황

3.1 국내 정책대화 도입 배경

- ▶ 국내 학술지 및 보고서들을 중심으로 정책대화 방법의 국내 도입 배경을 조사하였을 때, 이는 과학기술의 거버넌스의 변화와 상당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

[표 4] 과학기술 거버넌스의 변화¹⁶⁾와 정책대화의 도입 시기

구분	1단계 전통적 거버넌스 (1950-1987)	2단계 협력 중심의 전통적 거버넌스 (1988-2002)	3단계 참여적 거버넌스 (2003~)
주요 목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결정 요인	국방	산업경쟁력	고용 및 삶의 질
지리적 협력 규모	국가	국가간	세계적
행정부 주도권	국방, 교육, 연구	교육, 연구, 산업	부서간 조정
정책 수단 - 특성	과학주도 - 관료중심	기술주도 - 관료와 전문가	수요주도 - 관료, 전문가, 이용자
우선순위 결정방식 - 거버넌스 특징	정치·과학 - Top-down	기술·산업 - Top-down	사회·정치 - Bottom-up
실행단위와 주요 이해관계자	공공부문 연구기관	협력·유인프로그램	TF, 학제간프로그램
평가방법	동료평가	동료평가, 사용자평가	재정, 사회·경제평가
평가기준	과학적 우수성 및 영향	과학적 우수성, 기술 경쟁력 기여 및 영향	사회·산업수요 부응 및 사회·경제적 영향

※ 출처: 저자 작성

- 1단계인 관료 중심의 전통적 거버넌스는 특히나 1967년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기본법인 과학기술진흥법을 전면적으로 개편한 ‘과학기술정책을 위한 특별법’¹⁷⁾을 필두로, 과학기술 역량이 열약한 민간부문(기업)을 위한 정부 지원 성격을 강하게 띠
- 2단계인 협력 중심의 전통적 거버넌스는 1단계에서의 성과들을 수확하며, 선진기술을 배우고 경제적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에 행정관료와 전문가집단인 과학기술자들 사이의 협력 내지 협의가 강조되는 성격을 띠. 이를 위해 기술정책 계획수립에 과학기술자들의 조직적인 참여가 공청회, 간담회를 통해 이뤄짐
- 그러나, 과학기술자 집단의 조직적인 참여는 행위자들간의 명확한 관계 설정 없이 과학기술정책의 정당성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동원되어 일회적이고 단편적인 참여의 성격을 보임¹⁶⁾

- 3단계인 참여적 거버넌스는 시민사회의 성숙도와 더불어 경실련,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의 설립과 같이 과학기술정책의 영역에 새로운 주요 행위자들이 등장하여 과거 관료와 소수의 전문가 집단에 의해 형성되던 과학기술정책에 다양한 행위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모습을 보임^{18), 19), 20)}
- 실례로 동물복제에서 시작된 인간복제 논란에 시민단체들이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관련법 제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핵폐기물처리장 건립에 집단대응하여 정부 정책을 좌절시킨바 있음¹⁸⁾
- 정책대화와 같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시키는 방법은 정권의 교체에 따른 과학기술 거버넌스의 변화, 시민사회 성숙에 따른 정책의견 제시 활성화, 제5조 과학기술정책의 중시와 개방화 촉진과 같은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¹⁷⁾과 같은 국내 행정구조·사회·법의 질적 성장에 따라 도입됨

3.2 국내 정책대화 적용 현황

▶ 문헌조사와 같은 이차적 연구(Secondary, Desk Research)를 통해 확인된 국내 정책대화 도입 현황을 살펴보면, 기후기술과 관련된 분야별*로 정책대화 적용 특징이 상이함

* 기후기술관련 분야: 과학기술, 환경/탄소중립, 국제개발협력

[표 5] 기후기술관련 분야별 정책대화 적용 특징 요약

특징	과학기술 ²¹⁻²⁵⁾	환경/탄소중립 ²⁶⁻²⁸⁾	국제개발협력 ²⁹⁻³¹⁾
적용 방안	정책 홍보	정책 소통	정책 수립
목표	정책 대상 집단의 이해와 동의	협력적 문제 해결	실득을 통한 협력 사업 추진
목적	국내 과학기술의 발전 및 혁신	국내 정책의 사회적 수용성 증가	한국 주도 국제 협력 체계 마련
범위	정치, 기술전문가	공공(국민)	국가간
주요 주도 및 참여자	한국과학기술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환경부, 탄소중립위원회	과기부, 외교부, 산업부 등의 고위급 정책결정자
주요수단	고객 관리 (토론회)	사회적 합의 형성 (언론, 웹사이트, SNS)	공론장 형성 (행사)
빈도	기관별 연간 약 1건~3건	연간 약 50건 이상	부처별 연간 약 2건~5건
평가	알 수 없음	소통 만족도 조사	사업 개발 및 이행 건 수
영향력	알 수 없음	25 / 150	알 수 없음

※ 출처: 저자 작성

- 과학기술분야에서 정책대화는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적용되고 있으며, 정책대상 집단의 이해와 동의²¹⁾를 기반으로 한 국내 과학기술의 발전 및 혁신^{21), 24)}을 목적으로 함
- 가장 최근 치러진 정책대화는 제 20대 ‘대선 캠프와의 과학정책 대화’²⁵⁾로 국내 정치가와 과학기술전문가 사이의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나 해당 정책대화 적용에 따른 정책 홍보의 영향력을 확인 할 수 없었음

- 환경분야 및 탄소중립과 관련하여 정책대화는 정책을 소통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적용되어 왔으며, 협력적 문제 해결을 통해 국내 정책의 사회적 수용성 증가를 목적으로 함²⁶⁾
- 공공 중 특히 시민사회와의 정책 소통에 언론, 웹사이트, SNS등 다양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창구를 활용^{27), 28)}하였으며 동 포커스가 확인한 빈도수는 적어도 연간 약 50건으로 나타남
- 소통 만족도 조사를 통해 150점 만점 중 25점의 소통 체감도²⁶⁾를 기록하여 정책대화 적용의 효과성을 평가하려는 노력이 돋보임
- 국제개발협력에서 정책대화는 고위급 정책결정자들간의 공론을 통해, 설득을 기반으로한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한국 주도 국제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것에 적용되고 있음²⁹⁾
- 관계부처별로 연간 약 2건에서 5건의 고위급 정책대화를 실행 중³⁰⁾에 있으며, 국제협력 사업 개발 및 이행 건수에 따라 정책대화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있으나³¹⁾, 정책대화의 적용과 사업 개발 이행 건수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기록한 문서는 찾을 수 없었음

3.4 소결

- ▶ 국내에서 정책대화는 과학기술 거버넌스의 변화에 따라 제시된 기술소통방법으로, 정부 부처 주도하에 이뤄지고 있음
- ▶ 국내에서는 정책대화의 수단으로 디지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고 있어, 보다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결정되는 개방형 정책체계 아래 정책대화 이행 중
-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대화 가이드라인 및 효과성을 판단할 수 있는 문서는 찾아볼 수 없었음
- ▶ 국내 주도 국제무대에서 정책대화를 시행하고, 효과성 검증하는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한국의 기후기술협력 사업 개발 촉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

4

국외 정책대화 도입 배경 및 적용 현황

4.1 국외 정책대화 도입 배경

❶ 국외 학술지들을 중심으로 정책대화 방법의 국외 도입 배경을 조사하였을 때, 이는 민주적 과학기술 형성 관점에 기초하고 있음을 확인

- 정책대화는 영미권의 ‘대화하는 과학(PUSH, Public Understanding of the Science and Humanities)³²⁾이라는 이니셔티브에서 뻗어 나온 참여 방법으로, 기존의 과학기술문화와 과학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비판적 혹은 반성적 인식에 기초하고 있음
- PUSH는 과학대중화의 차원을 넘어 ‘과학’이 계몽의 대상이 아닌 대화의 대상이라는 과학자들의 인식변화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하나의 진리로 특권화할 수 있는 전문화된 과학기술을 일반인들에게 보급시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과학과 사회의 양방향적인 발전을 지향함³³⁾
- 무엇보다도 정책대화는 과학기술의 사회적 수용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의 과학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윤리·문화적 문제에 대해 사회구성원들의 의견을 미리 청취하여 이를 예방하고 보완한다는 점³⁴⁾에서 과학기술의 민주화 관점에 기인함
- 이러한 관점은 과학기술자가 사회·경제·문화·윤리적 영향을 미칠 지식의 생산자로서 생산과정상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확보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의식 또한 고려한 연구윤리를 점철시키는 것과 맞닿아있음³⁵⁾
- 실제로 총 6개의 독일 과학계 대표들은 과학연구기관과 대학들의 공동 토론 플랫폼을 확보하여, 자발적인 공동 목표와 연대를 형성하였음. 구체적인 과학기술 활성화 사업과 활동에 각 참여주체의 개별적 관심사를 넘어선 공동 기획, 실행하고 있음. 독일 정부는 파트너로서 참여하여 재정 지원을 전담함³⁶⁾
- 즉, 국외 과학기술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는 정책대화는 단순히 과학의 사회적 수용을 높이기 위한 선전이나 과시가 아닌, 과학과 사회 사이의 비판적 대화와 상호학습을 통한 정당성의 확보 및 인정과정을 지향함³⁷⁾
- PUSH 하 ‘대화(Dialogue)’는 메인행사(주제별 강연, 전시회, 토론회, 체험전), 위성행사(견학프로그램), 인터넷(라이브 중계, 온라인 게임), TV 토크쇼(대중인사가 참가하는 과학 토론, 담화, 논쟁 프로그램), 사이언스 스트리트(현장 여론조사를 통한 우수 사례 소개)등을 통해 진행되고 있음³⁸⁾
- 가장 활발히 ‘대화하는 과학’을 실행중인 독일의 예를 통해 기후기술 정책대화가 지향해야할 원칙과 활동 방향은 다음과 같음 :
 - 1) 독백이 아닌 대화 : 일방적인 발표나 설명이 아닌 이해관계자간의 양방향적, 개방적 대화 지향

- 2) 학제성 : 주제, 시안별 여러 분야를 포괄한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개진하고 논의하는 학제적 대화 지향
- 3) 탈전형 의사소통 : 전형적인 형식(강연회, 세미나)에서 더 나아가 대화의 폭과 상대를 최대한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한 모든 의사소통수단 활용 지향
- 4) 전문역량의 재정의 : 과학자라는 전문가의 역량은 전문지식의 생성뿐만 아니라 대화상대에게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 할 수 있는 역량에 따라 평가
- 5) 협력과 네트워킹 : 대화상대를 사회영역의 상대로 인정하여 이들과의 집중적인 협력과 네트워킹을 지향

4.2 국외 정책대화 적용 현황

▶ 문헌조사를 통해 발견한 국제 및 해외 기구*에서 편찬한 정책대화 가이드라인 5편을 비교해보았을 때, 아래와 같은 정책대화 적용 공통 현상을 발견함

* 세계시민단체연합회(CIVICUS), 미주개발은행(IDB),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보건기구(WHO),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 모든 정책대화 가이드라인들은 이를 주도하는 기구들 및 관련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 4~5개의 정책대화 적용 단계를 소개하고 적용 방법을 설명하였음

[표 6] 국제기구 정책대화 가이드라인별 적용 특징 요약

특징	세계시민단체연합회(CIVICUS) ³⁹⁾	미주개발은행(IDB) ⁴⁰⁾	세계보건기구(WHO) ⁴¹⁾	유엔식량농업기구(FAO) ⁴²⁾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⁴³⁾
적용 방안	정책 소통	정책 정보 교환	정책 수립	정책 소통	정책 정보 교환
목표	협력적 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 제공	지역 협력 프로세스 창출	회원국 지식번역 능력 구축	협력 혁신 능력 개발	실천과 평가의 교훈 및 경험 관련 제안사항 파악
목적	사회 정치적 변화 촉진	국가간의 경험 교환	증거 정보 정책 결정 근거 마련	지역 협력 성능 및 체계 개선	정책 효과의 불확실성 제거
범위	공공(국민)	고위 관리 (차관급)	세계보건기구(WHO)회원국	농업 혁신 관계자	EU 협력 강화하려는 집단
주요 주도	지역 특정 비정부기구	미주개발은행(IDB)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식량농업기구(FAO)	EU 대표단 및 본부
주요수단	사회적 합의 형성 (포럼)	공론장 형성 (행사)	고객 관리 (토론회)	고객 관리 (토론회)	고객 관리 (토론회)
실행 단계	4단계	4개 분과	3단계	5단계	4단계
빈도	연간 약 1건~3건	연간 약 1건~3건	연간 약 2건~5건	연간 약 2건~5건	연간 약 5건~15건
평가	알 수 없음				
영향력	알 수 없음				

- 대체적으로 1단계는 정책대화의 목적 구체화, 2단계는 예상 장애요인과 가치(value) 구분, 3단계는 정책대화의 이행, 4단계는 결과 분석 및 수렴로 구분되어 있었음
- 실제 각 단계별 이행과정에서 초래했던 적용 장애요인, 예방 및 개선방안 등을 기재하여 가이드라인 사용 편의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보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용한 정책대화 가이드라인의 평가 및 영향력을 찾아 볼 수 없어 정책대화 가이드라인 특정 요소의 적용 적합성, 효율성 등에 대해 판단할 수 없었음

▶ **정책대화 가이드라인별 특징은 다음과 같음:**

① 세계시민단체연합회(CIVICUS)의 「Toolkit: TOWARDS NEW SOCIAL CONTRACT, USING DIALOGUE PROCESSES TO PROMOTE SOCIAL CHANGE」

- 정책 소통의 방안으로 마련한 정책대화 툴킷은 사회 정치적 변화 촉진을 목적으로 협력적 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을 제공함
- 적용 범위는 시민사회로, 타겟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특정 비정부기구의 주도 하에 연간 약 1건~3건의 사회적 합의 형성에 도움이 될 포럼 형식의 정책대화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사회적 체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사회적 합의 형성 과정에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총 4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규명함. 감시(monitor), 관여(engage), 협력(partner), 자율권부여(empower) 중에서도 해당 정책대화 가이드라인은 '자율권 부여(empower)'를 상위 가치로 명명하여 실행 단계를 제시함
- 다수의 이해관계자 대화 과정을 시작하고 진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유연한 단계를 1) 협력에 의해 추가되는 가치 정의, 2) 새로운 시나리오와 우선순위 공동 창조, 3) 개인 및 집단의 이니셔티브 수렴, 4) 이행 과정 모니터링으로 제시하였음

② 미주개발은행(IDB)의 「NATURAL DISASTERS NETWORK: DISASTER RISK MANAGEMENT BY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S」

- 미주개발은행(IDB)는 국가간의 경험 교환을 통한 지역 협력 프로세스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이사회 이니셔티브로 재난 위험 관리회를 창설하였으며, 재난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7가지 전문 네트워크 분야를 구축하였음
- 분야들은 무역과 통합, 빈곤 감소 및 사회 보고 네트워크, 인재 교육 및 양성, 거시경제 및 금융정책, 공공정책의 관리 및 투명성, 자연재해 관리, 환경 등으로 정책대화는 역량강화 차원의 정책 정보 교환의 방안으로 마련한 수단임
- 적용 범위는 차관급 혹은 동등한 직급을 가진 고위 관리로, 미주개발은행(IDB)의 지역관리자 주도하에 연간 약 1건~3건의 공론장 형성 형식의 정책대화 행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다섹터 간 참여에 언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최선일지에 관한 안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정책대화를 활용중임

③ 세계보건기구(WHO)의 「POLICY DIALOGUE PREPARATION AND FACILITATION CHECKLIST」

- 세계보건기구(WHO)는 회원국들의 지식번역 능력을 구축하기 위해 증거정보정책네트워크를 출범,

- 유럽 지역에서의 정책 결정을 위한 근거와 정책 결정에서 증거의 컨텍스트화와 활용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의 예시로, 증거 정보 정책 결정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서 정책대화를 제시하고 적용중
- 세계보건기구(WHO)는 정책대화의 적용이 단기적으로는(개인 수준에서) 정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식과 지식 개선, 커뮤니케이션 기술 향상 또는 관계 강화 등을 통해 역량의 증가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제시함. 중기적으로 (지역사회/조직 차원에서) 영향은 개인의 역량 강화를 통한 이해관계자 공동체 간의 권한 부여를 의미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정부 그룹에 영향을 미치려는 노력 촉진이 가능하다고 봄
- 그렇기에 정책대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건강(시스템 수준 효과)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식의 사용과 더불어, 이를 통한 정치인의 의제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긍정적인 정책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에 있다고 명명함
- 여러 이해관계자와의 대화 과정을 시작하고 진행하기 위한 단계를 1) 준비(Preparation, 세부 7단계), 2) 당일(On the day, 세부 지침사항 2개), 3) 사후 액티비티(Follow-up activities) 로 나누어 제시하였음
- 사용자로 하여금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정책대화 이행 문제 해결책을 해당 과정 이행 중 예상가능한 13개의 trouble-shooting as a facilitator로 제시함

④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ORGANISING A POLICY DIALOGUE: A practical guide」

-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기능적 능력 농업 혁신을 위한 정책 소통 기술을 먼저 개발함으로써 지역 협력의 성능과 체계의 개선을 꾀함
- 포괄적인 multi-stakeholder 접근법을 내포한 정책대화를 농업혁신과 관련된 국가정책과 정책개발 프로세스 자체에 적용하여, 이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높이고자 함
- 농업 혁신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총 5단계의 정책대화 적용 프로세스 제시: 1) 정책 환경 활성화에 대한 조사, 2) 혁신에 대한 정책 제약의 참여 분석, 3) 지역 정책 협의 및 국가 정책 대화 이벤트, 4) 실행 계획, 보고서 및 정책 개요 작성, 5) 실행 계획 전달 및 적용
- 국가차원의 농업혁신관련 정책대화 아젠다 초안(draft agenda for national policy dialogue event)과 사용자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는 평가서(evaluation form)를 제시하여 정책대화 과정에 활용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함

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TRAINING ON POLICY DIALOGUE FOCUSING ON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그린딜 등 새로운 위원회의 정책 우선순위를 교환하기 위해 EU 협력의 환경적 및 기후적 측면을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하려는 집단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대화를 제시
- 정책대화 가이드라인 중 처음으로 정치적 대화와 정책대화를 구분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책대화의 목적이 정책 효과의 불확실성 제거에 있으며, 실천과 평가의 교훈 및 경험 관련 제안사항을 파악하는 것에 있음을 명시함
- 토론회 형식으로 연간 5건~15건의 정책대화를 실시하고 있음이 추정되었으나, 해당 정책대화 적용으로 인한 정책 우선순위의 변화 및 EU 협력 강화 정도는 파악할 수 없었음

- 해당 가이드라인은 정책대화의 실패 리스크를 사람, 문제, 과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음. 정책대화를 실행하기 위한 기회, 생산적인 장소 및 진입점 등을 묘사하고, 특히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도구 사용, 준비 및 수행 시 인력, 문제 및 프로세스 차원 처리정책을 설명함

4.3 소결

- ▶ 국외에서 정책대화는 민주적 과학기술 정책을 형성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확인되어, 기술 전문가 집단 주도하에 정책대화가 이뤄지고 있음을 발견
- ▶ 대부분 대면을 필두로 한 행사 형식의 정책대화를 진행하고 있고, 각각의 요소들을 살펴보았을 때 정책 혹은 기술 발전 과정에 다수의 이해관계자 참여(participation)를 넘어선 기술소통의 가치(value)를 공동으로 창조(co-creation)하는 성격을 띠
- ▶ 국외 정책대화 가이드라인들은 기후기술 정책대화를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정책형성 및 결정과정, 평가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넘어선 기후기술 정책 수립의 공동가치(co-value)의 창출을 목적으로 할 것을 강력히 권고

5

기후기술협력 사업 개발 관련 시사점

▶ 기후기술협력사업 개발을 위한 공동 가치 창조형 정책대화 이행 권고

- 국내·외 모두 정책대화를 대부분 소통 및 정보 교환의 수단으로 적용하고 있어, 기후기술 소통 방법으로 정책대화를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그러나 정책대화 이행에 있어 접근 목적과 방향성이 국내는 이해관계자 참여 여부로 제한되어있어, 이를 국외 이행 접근 방식인 공동 가치의 창조 수준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음
- 즉, 국내 기후기술협력 개발을 목적으로 한 정책대화는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정책형성 및 결정과정, 평가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더불어 기후기술 정책 수립의 공동가치를 창출할 것을 권고

▶ 기후기술협력사업 개발을 위한 한국-주도 정책대화 가이드라인의 부재

- 국내의 경우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위한 소통이 “쌍방향적과 균형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 대한 동의는 존재하나, 실무차원에서 이를 지원할 가이드라인이 없음
- 향후 보충 연구를 통해 한국 주도 기후기술협력 사업 개발을 목적으로 한 정책대화 가이드라인의 보급 권고

▶ 정책대화의 실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영향평가체계 마련 필요

- 기후기술정책 유형별로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소유한 정부부처, 기업, 시민 및 시민단체들을 선별할 수 있는 선정체계 마련 필요
- 정부-기업-시민을 잇는 한국 기후기술소통 맞춤형 정책대화 가이드라인의 보급과 정책대화의 결과의 실제 이행 여부등 해당 방법 적용 실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평가체계 마련 필요

참고문헌

- 1) United Nations Climate Change. (2015). The Paris Agreement. 출처: <https://unfccc.int/process-and-meetings/the-paris-agreement/the-paris-agreement> (접속일: 2022.3.28)
- 2)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2016). Technology and the UNFCCC C; Building the found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출처: https://unfccc.int/ttclear/misc/_StaticFiles/gnwoerk_static/NAD_EBG/54b3b39e25b84f96aeada52180215ade/b8ce50e79b574690886602169f4f479b.pdf (접속일: 2022.3.28.)
- 3)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2016). REPORT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ON ITS SEVENTH SESSION, HELD AT MARRAKES FROM 29 OCTOBER TO 10 NOVEMBER 2001. 출처: <https://unfccc.int/sites/default/files/resource/docs/cop7/13a01.pdf> (접속일: 2022.3.28.)
- 4) Vladimir HECL. (2018). Joint CTCN UDP Forum for National Designated Entities (NDEs) for Africa Region. 출처: https://www.ctc-n.org/sites/www.ctc-n.org/files/session_1_-_technology_mechanism_and_cop_decisions.pdf (접속일: 2022.3.30.)
- 5)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2015). Decision 1/CP.21. 출처: <https://unfccc.int/resource/docs/2015/cop21/eng/10a01.pdf#page=2> (접속일: 2022.3.28.)
- 6) UN Climate Technology Center and Network. (2019). 13th CTCN Advisory Board Meeting. 출처: <https://www.ctc-n.org/calendar/events/13th-ctcn-advisory-board-meeting> (접속일: 2022.3.27.)
- 7) 박인혜, 이원아, 오채운 (2019). 2019년도 상반기 유엔기후변화협약 하 기술 메커니즘 회의 결과. 녹색기술센터.
- 8) UN Climate Technology Center and Network. (2019). Programme of Work 2019-2022. 출처: http://www.ctc-n.org/sites/www.ctc-n.org/files/ctcn_programme_of_work_2019-2022.pdf (접속일: 2022.3.27.)
- 9) Kim, J., Rundle-Thiele, S., Knox, K., & Dietrich, T. (2021). Laying the foundations for success: co-creating sustainable marketing solutions. *Journal of Strategic Marketing*, 1-29.
- 10) Geels, F. (2004) From Sectoral Systems of Innovation to Socio-technical Systems Insights about Dynamics and Change from Sociology and Institutional theory. *Research Policy*, Vol 33, No. 6-7.
- 11) 한국국제협력단(KOICA). (2022). 국제개발협력용어집. 출처: <http://www.koica.go.kr/> (접속일: 2022.3.27.)
- 12) 박은태 (2011). 경제학 사전. 경연사. ISBN 9788993070040
- 13) Prahalad, C. K., & Ramaswamy, V. (2004). Co-creation experiences: The next practice in value creation. *Journal of interactive marketing*, 18(3), 5-14.

- 14) Sartori, G. (1970). Concept misformation in comparative politic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4(4), 1033–1053.
- 15) Moses, J., & Knutsen, T. (2007). *Ways of Knowing: Comparing Social a Political Research*.
- 16) 권기창, 배귀희 (2006). 과학기술정책의 거버넌스 변화.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0(3), 27–53.
- 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책과). (2021). 과학기술기본법. 출처: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C%ED%95%99%EA%B8%B0%EC%88%A0%EA%B8%B0%EB%B3%B8%EB%B2%95> (접속일 2022.3.27.)
- 18) 성지은 (2006). 과학기술정책결정구조의 변화: 참여정부의 과학기술행정체제개편을 중심으로. ｢ 행정논총｣, 44(1):243–264
- 19) 고용수, 윤진호, 이장재 (2005). 한국의 과학기술정책 기획과정과 결정구조의 특성분석: 참여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 사례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11(1):353–371
- 20) 홍성만 (2004). 과학기술정책에서 신거버넌스의 대두: 시민참여적 프로그램의 활성화.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21) 은재호 (2016). 한국 행정학 60 년: 사회분야 연구동향. *한국행정학보*, 50(5), 301–337.
- 22) 송위진, 성지은 (2013).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과 사회-기술기획: 현황과 과제. *과학기술학연구*, 13(2), 111–136.
- 23) 성지은, 송위진 (2013). 사회에 책임지는 과학기술혁신: Responsible Research and Innovation 논의 동향. *Issues & Policy*, (69), 1–24.
- 24) 성지은, 박인용 (2016). 시스템 전환 실험의 장으로서 리빙랩: 사례분석과 시사점. *기술혁신학회지*, 19(1), 1–28.
- 25) KAIST NEWS (2022). 대선 후보 초청 <대선 캠프와의 과학정책 대화> 개최​. 출처: https://www.kaist.ac.kr/news/html/news/?mode=V&mng_no=18450 (접속일 2022.3.27.)
- 26) 염정윤, 정행운 (2020). 환경정책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 소통 모형 개발 기초연구. *기초연구보고서*, 2020, 1–51.
- 27) 대한민국 환경부 (2022). 대한민국 환경부 페이스북. 출처: <https://www.facebook.com/mevpr/> (접속일 2022.3.26.)
- 28) 국무조정실 (2021). [보도자료] 제36차 목요대화. 출처: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38408> (접속일 2022.3.26.)
- 29) KSP (2022). 최종보고회 및 고위정책대화. 출처: <https://www.ksp.go.kr/post/result?page=0&categoryId=&period>manual&srchType=&extraDate1=&extraDate2=&srchText=&listCount=10> (접속일 2022.3.26.)
- 30) 외교부 (2022). 「제2차 한-호주 아세안 정책대화」 개최 결과. 출처: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99996> (접속일 2022.3.26.)
- 31) 외교부 (2022). 「외교부-시민사회 정책대화」 개최. 출처: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00344> (접속일 2022.3.26.)
- 32) Durant, J. R., Evans, G. A., & Thomas, G. P. (1989). The public understanding of science. *Nature*, 340(6228), 11–14.

- 33) Laugsch, R. C. (2000). Scientific literacy: A conceptual overview. *Science education*, 84(1), 71–94.
- 34) Sturgis, P., & Allum, N. (2004). Science in society: re-evaluating the deficit model of public attitudes. *Public understanding of science*, 13(1), 55–74.
- 35) Van Est, R. (2011). The broad challenge of public engagement in science. *Science and Engineering Ethics*, 17(4), 639–648.
- 36) 신동민 (2001). 독일의 과학대화문화: 대화하는 과학. *Science & Technology Policy*, 11(5), 87–98.
- 37) Aulenbacher, B., Burawoy, M., Dorre, K., & Sittel, J. (Eds.). (2017). *Public Sociology: Science in Dialogue with Society*. Campus Verlag.
- 38) *Wissenschaft in Dialog* (2022). Projekte. 출처: <https://www.wissenschaft-im-dialog.de/> (접속일 2022.3.30.)
- 39) CIVICUS (2013). *Towards New Social Contracts: using dialogue processes to promote social change*. 출처: <https://www.civicus.org/index.php/es/centro-de-medios/recursos/manuales/617-civil-society-toolkit-towards-new-social-contracts-using-dialogue-processes-to-promote-social-change-2> (접속일 2022.3.25.)
- 40) IDB (2003). *Disaster Risk Management by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s*. 출처: <https://publications.iadb.org/en/disaster-risk-management-communities-and-local-governments> (접속일 2022.3.24.)
- 41) WHO (2016). *POLICY DIALOGUE PREPARATION AND FACILITATION CHECKLIST* 출처: https://www.euro.who.int/__data/assets/pdf_file/0017/323153/EVIPNET-PD-preparation-facilitation-checklist.pdf (접속일 2022.3.25.)
- 42) FAO (2019). *ORGANISING A POLICY DIALOGUE: A practical guide*. 출처: <https://www.fao.org/documents/card/en/c/CA4756EN/> (접속일 2022.3.23.)
- 43) European Commission (2019). *TRAINING ON POLICY DIALOGUE FOCUSING ON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출처: <https://europa.eu/capacity4dev/public-environment-climate/wiki/policy-dialogue-environment-and-climate-change> (접속일 2022.3.24.)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173
남산스퀘어 빌딩 17층
Tel. 02.3393.3900
Fax. 02.3393.3919~20
www.gtck.re.kr

* 본 GTC FOCUS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센터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